

Korea - Reasons for Growth 1995

Conservative Biblical Theology

Christ-centered Evangelism

Church-focused, Culture-sensitive
ecclesiology

strict ~~morals~~, socially conservative
ethic.

Strict moral standards of
personal and family behavior.

KOREAN CHURCH GROWTH

Welcome to S. Korea -

S. Korea: bright spot in a dark continent (West Africa, 50% Xn + 2000) Asia 3%

but Korea: - 60 churches visible from ride from airport. 3,000 S. Korean

Take a taxi - Xn driver's assoc.

TV - and the MC, or some may be ambassadors club.

Ask what the best coffee + wine - ask you to see to

then about Dr. Chung - like Song in

So disabuse yourselves of any missionary caricatures you've brought with you.

- ① You won't find missionaries in both helmets converting cannibals in jungle. Here the missionaries were the barbarians, the natives civilized gentiles.
- ② You won't find loud protests against missionary imperialism and cries of "Yahweh go home!" Here the imperialists were Asians - the Japanese.
- ③ You won't find Westerners leading the church, and guiding converts by the hand. Here - before Paul, one of my best teachers was to interpret for Dr. Hans.

"The Koreans were always one step ahead of the missionary"

- ① The first evangelist was not a missionary - but Korean: Lee Seung-Hwan.
- ② The first mission was not a Westerner - but Chinese: Chou.
- ③ So also Protestants - before the missionaries - Seh Seung-Yoon.

But ~~the~~ don't down-grade the work of the missionaries - it was important - and it still is.

1. Begin with Allen, 1884 - and the opening of the country to legally permitted evangelism. The 1884 incident.
2. Or with Underwood's Appenzeller - who started with schools - when evangelism was still prohibited. Mrs. Scramton.
3. Or with my father: - and the explosion of church growth. - One of best things he did was to welcome first S. Presb. 1892 - Then he got restless - he urged S. to go south. He went with.

What made the church grow?

1. The Koreans themselves - enthusiastic witnesses.
2. Missionary spirit - Yi Kwi-Pong.
3. Wise missionary principles - Norris principles, Father "So you."
4. Bible classes
5. Lay witnesses

* The 1996 edition
isn't out yet.

한국종교연감

1995



한국종교사회연구소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Religion + Society

으로

회관

1995

THE YEARBOOK OF KOREAN RELIGIONS

1995 (Vol. 3)

Edit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RELIGION & SOCIETY

Published by

KOREA HALIMWON

Rm. 502 Harvard Officetel, 875-7 Bongchon 4 dong

Kwanak-gu, Seoul, 151-054 Korea

Printed in Korea

〈통계〉

1994년 통계청 사회조사(종교 인구 및 집회참여도)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사회지표 작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조사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각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의식 및 사회적 관심사와 삶의 질에 관련된 항목들을 조사하여 사회 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사회 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2. 조사 연혁

- 1977년 : 3월 최초 실시 이후 3~5년 주기로 부문을 바꾸어 가면서 매년 조사
 - 1978~84년 : 매년 4~5개 부문을 선정하고 부문당 평균 5개 정도의 조사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
 - 1985년 이후 : 깊이있는 조사를 위해 2~3개 부문을 선정하고 조사 항목을 평균 15개 정도로 확대하여 조사

3. 실시 근거

-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 제7호(승인번호 : 10118)

4. 조사 대상

- 전국 약 32,500 표본 가구 내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 대상 가구원 수는 총 80,081명

5. 조사 기간

- 1994. 5. 23 ~ 6. 1(10일간)

6. 조사 방법

- 면접 타계식 조사를 원칙으로 자계식 조사 병용

7. 조사 내용

- 사회 부문의 12개 항목

8. 조사 항목별 조사 대상

-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다만 실제 노부모 부양 여부, 노후 대비 방법, 계층 귀속 의식, 계층 이동 가능성(세대간, 세대내)의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조사 항목명	조사 대상	비고
- 가정 생활 만족도	15세 이상 기혼자 가구원	
- 청소년 문제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청소년 고민에 대한 견해	15~20세 이하 가구원	신규
·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		
- 노부모 부양 및 노후 대비 방법	부모 생존 가구주	신규
· 실제 노부모 부양 여부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 노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	가구주	
· 노후 대비 방법		
-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신규
· 현재 상태		

조사 항목명	조사 대상	비고
• 3년 전과 비교 - 종교 인구 및 집회 참여도 - 계층 귀속 의식 및 계층 이동 • 주관적 계층 귀속 의식 • 세대간 계층 이동 가능성 • 세대내 계층 이동 가능성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II. 질문 내용

“무슨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있다면 종교 집회에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1. 있다 →
- | | | |
|--|---|--|
| 1. 불 교
2. 기독교
3. 천주교
4. 유 교
5. 원불교
6. 천도교
7. 기 타 | → | 참여 횟수
1. 주 2회 이상
2. 주 1회 정도
3. 월 1회 정도
4. 1년에 5~6회 정도
5. 1년에 3~4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7. 참여하지 않는다 |
|--|---|--|

2. 없다

III. 종교 인구 및 집회 참여도

○ 종교 인구 비율(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49.9%, 무종교가 50.1%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음

종교 인구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이 6.2%p 더 많았음
 연령 계층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 인구 비중이 높은 추세임

○ 종교 유형별로 보면 '불교' 인구가 24.4%로 가장 많고, '기독교' 18.2%, '천주교' 5.9% 순으로 나타남
 불교는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냄
 기독교는 도시 지역의 비중이 높고, 젊을수록 비중이 높았음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종교 있는 사람의 비중이 3년 전의 54.0%에 비하여 4.1%p 감소하였는데, 종교 유형별로는 '불교'는 3.2%p, '유교'는 0.6%p, '기독교'는 0.4%p 감소한 반면, '천주교'는 0.2%p 증가하였음

주
교
대

종
교

<표 1 종교인구>

1994

(단위:%)

	계	종교									종교 없음
		있음	Buddhist 불교	Prot.Ym 기독교	R.C. 천주교	Confuc. 유교	Wm.Buddh 원불교	Chondogyo 천도교	기타		
'94 전 국	100.0	49.9	24.4	18.2	5.9	0.4	0.3	0.1	0.7	50.1	
시 부	100.0	51.3	23.7	19.5	6.7	0.3	0.3	0.1	0.7	48.7	
군 부	100.0	45.1	26.6	13.8	3.1	0.8	0.3	0.1	0.5	54.9	
남	100.0	41.9	20.3	15.4	4.8	0.6	0.3	0.1	0.5	58.1	
여	100.0	57.4	28.2	20.9	6.9	0.2	0.4	0.1	0.8	42.6	
15 ~ 19	100.0	40.8	11.4	22.6	6.1	0.1	0.2	0.0	0.4	59.2	
20 ~ 29	100.0	38.7	14.4	18.5	4.9	0.2	0.2	0.1	0.5	61.3	
30 ~ 39	100.0	51.8	24.5	19.7	6.4	0.1	0.4	0.1	0.7	48.2	
40 ~ 49	100.0	57.5	30.6	18.3	7.2	0.3	0.3	0.1	0.7	42.5	
50 ~ 59	100.0	58.8	36.0	14.9	5.5	0.9	0.5	0.1	1.0	41.2	
60+	100.0	57.1	35.5	13.7	5.3	1.2	0.4	0.2	0.8	42.9	
국졸이하	100.0	54.1	35.2	12.9	3.9	0.8	0.4	0.1	0.9	45.9	
중졸	100.0	49.0	24.1	18.3	5.3	0.3	0.3	0.1	0.7	51.0	
고졸	100.0	46.8	20.5	19.2	5.9	0.3	0.3	0.1	0.6	53.2	
대졸이상	100.0	52.6	17.0	24.3	10.0	0.2	0.5	0.1	0.5	47.4	
상층	100.0	61.7	27.7	24.5	6.6	1.1	1.1	0.0	0.8	38.3	
중층	100.0	48.5	24.1	17.0	5.9	0.5	0.3	0.1	0.5	51.5	
하층	100.0	44.5	25.9	13.2	3.7	0.5	0.3	0.1	0.8	55.6	

	계	종교									종교 없음
		있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		
'91 전 국	100.0	54.0	27.6	18.6	5.7	1.0	0.3	0.2	0.6	46.0	
시 부	100.0	56.5	27.3	20.6	6.8	0.7	0.3	0.1	0.6	43.5	
군 부	100.0	46.7	28.6	12.6	2.8	1.6	0.4	0.2	0.6	53.3	
남	100.0	46.8	24.0	15.8	4.8	1.3	0.3	0.1	0.5	53.2	
여	100.0	60.5	31.0	21.1	6.6	0.7	0.4	0.1	0.7	39.5	
15 ~ 19	100.0	44.4	13.3	24.2	5.6	0.3	0.3	0.1	0.5	55.6	
20 ~ 29	100.0	43.4	17.4	19.3	5.3	0.4	0.3	0.1	0.5	56.6	
30 ~ 39	100.0	58.0	29.5	20.3	6.4	0.8	0.3	0.1	0.6	42.0	
40 ~ 49	100.0	63.3	36.0	18.3	6.8	1.1	0.4	0.1	0.6	36.7	
50 ~ 59	100.0	60.4	38.7	13.8	4.8	1.7	0.4	0.2	0.8	39.6	
60+	100.0	59.1	37.5	12.9	5.0	2.2	0.5	0.2	0.7	40.8	
국졸이하	100.0	56.1	36.9	12.7	3.6	1.5	0.4	0.1	0.9	44.0	
중졸	100.0	52.7	26.2	19.7	4.9	0.9	0.3	0.1	0.6	47.4	
고졸	100.0	52.2	23.7	20.3	6.6	0.7	0.3	0.1	0.5	47.8	
대졸이상	100.0	57.9	20.2	26.0	10.4	0.6	0.3	0.1	0.3	42.0	
상층	100.0	60.9	33.1	16.5	9.0	0.9	0.4	0.2	0.8	39.1	
중층	100.0	54.7	29.5	17.3	5.7	1.2	0.3	0.2	0.5	45.3	
하층	100.0	48.6	27.0	15.0	3.8	1.5	0.3	0.2	0.8	51.4	

<표 1-1 종교인구-1991년 대비 증감표> 1991-1994 % + -

(단위: %p)

	종교								종교 없음
	있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주교	기타	
전국	-4.1	-3.2	-0.4	0.2	-0.6	0.0	-0.1	0.1	4.1
시	-5.2	-3.6	-1.1	-0.1	-0.4	0.0	0.0	0.1	5.2
	-1.6	-2.0	1.2	0.3	-0.8	-0.1	-0.1	0.1	1.6
남	-4.9	-3.7	-0.4	0.0	-0.7	0.0	0.0	0.0	4.9
	-3.1	-2.8	-0.2	0.3	-0.5	0.0	0.0	0.1	3.1
15 ~ 19	-3.6	-1.9	-1.6	0.5	-0.2	-0.1	-0.1	-0.1	3.6
20 ~ 29	-4.7	-3.0	-0.8	-0.4	-0.2	-0.1	0.0	0.0	4.7
30 ~ 39	-6.2	-5.0	-0.6	0.0	-0.7	0.1	0.0	0.1	6.2
40 ~ 49	-5.8	-5.4	0.0	0.4	-0.8	-0.1	0.0	0.1	5.8
50 ~ 59	-1.6	-2.7	1.1	0.7	-0.8	0.1	-0.1	0.2	1.6
60+	-2.0	-2.0	0.8	0.3	-1.0	-0.1	0.0	0.1	2.1
국종이하	-2.0	-1.7	0.2	0.3	-0.7	0.0	0.0	0.0	1.9
중종	-3.7	-2.1	-1.4	0.4	-0.6	0.0	0.0	0.1	3.6
고종	-5.4	-3.2	-1.1	-0.7	-0.4	0.0	0.0	0.1	5.4
대종이상	-5.3	-3.2	-1.7	-0.4	-0.4	0.2	0.0	0.2	5.4
상층	0.8	-5.4	8.0	-2.4	0.2	0.7	-0.2	0.0	-0.8
중층	-6.2	-5.4	-0.3	0.2	-0.7	0.0	-0.1	0.0	6.2
하층	-4.1	-1.1	-1.8	-0.1	-1.0	0.0	-0.1	0.0	4.2

IV. 종교 집회 참여도

○ 종교를 가지고 있는 15세 이상 종교 인구의 종교 집회 참여도는 '주 1회 정도'(22.2%), '1년에 1~2회 정도'(18.3%), '주 2회 이상'(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약 40%가 주 1회 이상 종교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보다는 여자가,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참여 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참여 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종교 유형별로 보면,
불교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이 '1년에 1~2회 정도'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않아 참여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음[이는 집회장소(절)가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불교의 특성에 기인함]

○ 집회가 자주 있는 기독교의 경우 80% 정도가 주 1회 이상 종교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주 2회 이상의 경우도 40% 정도로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천주교의 경우도 64%가 주 1회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원불교와 천도교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1-2 참여도>

(단위 : %)

		종교인구 총 계	주 2회 이상	주 1회 이상	월 1회 정 도	1년에 5-6회	1년에 3-4회	1년에 1-2회	참 여 않 음
94	전 국	100.0	16.7	22.2	12.3	8.6	8.1	18.3	13.8
	시 군	100.0	17.0	23.5	13.2	8.3	6.9	16.4	14.7
	부	100.0	15.4	17.1	8.7	9.8	12.9	25.7	10.5
	남	100.0	13.2	22.0	11.5	7.5	7.3	19.8	18.7
	여	100.0	19.1	22.4	12.9	9.3	8.7	17.2	10.4
	15 ~ 19	100.0	13.5	37.2	9.0	4.3	3.6	11.6	20.9
	20 ~ 29	100.0	14.7	26.8	9.9	6.6	5.3	16.8	20.0
	30 ~ 39	100.0	17.8	21.7	13.2	8.4	7.3	18.4	13.3
	40 ~ 49	100.0	19.2	19.4	14.7	10.0	9.4	17.7	9.7
	50 ~ 59	100.0	16.0	16.9	14.0	11.0	11.4	20.3	10.4
	60+	100.0	17.0	16.8	11.2	10.1	11.3	22.7	11.0
	국졸이하	100.0	15.4	15.0	12.0	11.1	12.8	23.5	10.2
	중졸	100.0	15.8	23.2	12.9	8.5	7.5	17.5	14.7
	고졸	100.0	17.1	23.7	12.5	7.7	6.5	16.9	15.7
	대졸이상	100.0	19.2	30.1	11.6	6.7	4.8	13.4	14.1
	불기	100.0	1.7	2.9	16.4	13.8	14.8	32.9	17.5
	천주교	100.0	36.0	41.0	7.6	3.0	1.3	3.0	8.1
	유신교	100.0	18.4	45.6	9.0	4.4	2.1	5.9	14.7
원천기	100.0	1.4	1.6	7.9	13.1	12.3	21.2	42.5	
불도	100.0	7.9	33.4	15.8	8.3	4.6	20.6	9.5	
천도	100.0	4.7	23.7	17.5	12.6	1.4	4.7	35.5	
기타	100.0	39.0	17.0	20.9	3.0	2.5	7.0	10.6	

		종교인구 총 계	주 2회 이상	주 1회 이상	월 1회 정 도	1년에 5-6회	1년에 3-4회	1년에 1-2회	참 여 않 음
91	전 국	100.0	15.5	20.8	10.8	8.6	8.9	19.8	15.7
	시 군	100.0	15.9	22.8	11.7	8.5	7.3	17.8	16.0
	부	100.0	14.3	13.9	7.4	8.7	14.5	26.5	14.6
	남	100.0	11.8	20.2	9.9	7.4	7.7	21.7	21.4
	여	100.0	18.1	21.3	11.4	9.3	9.7	18.4	11.7
	15 ~ 19	100.0	14.5	36.2	8.8	4.3	3.0	12.8	20.4
	20 ~ 29	100.0	14.7	24.4	9.1	6.8	5.4	18.1	21.6
	30 ~ 39	100.0	17.1	19.4	10.7	8.6	8.6	20.5	15.0
	40 ~ 49	100.0	16.0	18.7	13.1	10.3	10.6	20.2	11.0
	50 ~ 59	100.0	14.6	14.2	12.4	10.8	13.0	22.5	12.6
	60+	100.0	15.2	15.3	9.9	9.5	12.3	23.1	14.7
	국졸이하	100.0	14.0	13.3	10.4	10.5	13.7	24.7	13.4
	중졸	100.0	14.7	23.2	11.1	8.3	8.0	18.8	15.9
	고졸	100.0	16.1	22.7	11.0	7.5	6.8	17.8	18.0
	대졸이상	100.0	19.2	29.2	10.3	7.3	4.8	15.1	14.2
	불기	100.0	1.8	2.4	13.0	13.1	15.5	34.3	19.9
	천주교	100.0	35.4	40.7	7.7	3.4	1.4	3.2	8.2
	유신교	100.0	18.7	48.5	9.4	4.1	2.1	5.2	12.1
원천기	100.0	1.3	0.8	3.9	5.7	8.0	18.9	61.5	
불도	100.0	11.7	21.3	18.1	10.1	10.5	18.5	9.8	
천도	100.0	9.5	19.8	25.1	11.8	3.0	7.2	23.6	
기타	100.0	29.7	18.4	22.4	3.4	2.2	8.2	15.6	

<표 1-3 참여도-1991년 대비 증감표>

(단위: %)

	주 2회 이 상	주 1회 이 상	월 1회 정 도	1년에 5~6회	1년에 3~4회	1년에 1~2회	참 여 않 음
전 국	1.2	1.4	1.5	0.0	-0.8	-1.5	-1.9
시 부	1.1	0.7	1.5	-0.2	-0.4	-1.4	-1.3
군 부	1.1	3.2	1.3	1.1	-1.6	-0.8	-4.1
남	1.4	1.8	1.6	0.1	-0.4	-1.9	-2.7
외	1.0	1.1	1.5	0.0	-1.0	-1.2	-1.3
15 ~ 19	-1.0	1.0	0.2	0.0	0.6	-1.2	0.5
20 ~ 29	0.0	2.4	0.8	-0.2	-0.1	-1.3	-1.6
30 ~ 39	0.7	2.3	2.5	-0.2	-1.3	-2.1	-1.7
40 ~ 49	3.2	0.7	1.6	-0.3	-1.2	-2.5	-1.3
50 ~ 59	1.4	2.7	1.6	0.2	-1.6	-2.2	-2.2
60+	1.8	1.5	1.3	0.6	-1.0	-0.4	-3.7
국졸이하	1.4	1.7	1.6	0.6	-0.9	-1.2	-3.2
중졸	1.1	0.0	1.8	0.2	-0.5	-1.3	-1.2
고졸	1.0	1.0	1.5	0.2	-0.3	-0.9	-2.3
대졸이상	0.0	0.9	1.3	-0.6	0.0	-1.7	-0.1
불교	-0.1	0.5	3.4	0.7	-0.7	-1.4	-2.4
기독교	0.6	0.3	-0.1	-0.4	-0.1	-0.2	-0.1
천주교	-0.3	-2.9	-0.4	0.3	0.0	0.7	2.6
유교	0.1	0.8	4.0	7.4	4.3	2.3	-19.0
원불교	-3.8	12.1	-2.3	-1.8	-5.9	2.1	-0.3
천도교	-4.8	3.9	-7.6	0.8	-1.6	-2.5	11.9
기타	9.3	-1.4	-1.5	-0.4	0.3	-1.2	-5.0

* 이상 1994년 통계청 자료임

更正儒道

= Renewed Confucianism

金彌大道

{ Taoistic
and 天道教

Great Teaching (Instruction) 。

Eternal

大巡眞理會

Great Pilgrim (P)

Assembly of Great pilgrims
for Truth.

Esoteric
= a buddhist
sect imported
from Japan)
late 19th cen)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하는 기업
주식회사 원일음향
 교회 음향 영상 판매 시공
 TEL 02)2266-3580 www.pashop.co.kr
 FAX 02)2271-1110

목회자신문

전도·행사용품 기록교인터넷백화점
 2006 영혼의 건강 전도지
 경형지압법으로 지친 일상에 쉽게 다가가는 전도지
 규격: 접은면 90x175mm 1속(3중 150매)
 주문: 1속 6,000원 (기본 주문 5속 30,000원)
 천사의 선물 www.angelgift.net ☎02)763-7004

WWW.MOKHOEJA.COM 대표전화 (02)766-8671

THE PASTOR TIMES

창간 1995년 4월 15일(주간)

2006년 5월 13일(토요일) 제 493호

세계 신학자들 한반도 평화선언

몰트만 등 216명, 유학생 나모스클럽 '디딤돌'

위르겐 몰트만(튀빙엔대), 스탠리 하우워어즈(뉴크대), 존 캅(클레어몬트대), 제임스 콘(유니온신학교), 마가렛 미첼(시카고대),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하버드대) 등 세계적인 신학자 216명이 서명에 동참한 한반도 반전평화 선언문이 발표되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진보와 보수 교과를 초월해서 한반도문제에 폭력적방법이 아닌 신학적이며 평화적인 수단만이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게 된 이번 선언문은 한국과 미국, 유럽등지에서 신학수업과정에 있는 신학도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지난 2일 백주년기념관에서 발표되었다.

선언문에는 위기에 처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에로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하나님의 참 평화는 폭력이 아닌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실현된다"라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한반도 반전평화 선언문은 신학유학공동체 인터넷 나모스클럽을 통해 서로 교류하던 신학도들이 인터넷을 통한 교정작업과 서명을 받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정배 교수(감신대)는 선언문의 의의와 관련 "지극히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선언이 정치적 사회적인 파급력을 지닐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의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서명에 참가한 이들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선언문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았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신학자들이 참가하여 국제적 평화운동의 면모를 보였다.

신학생들로 구성된 평화선언문의 발기자들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결성하지 않고 신학을 기반으로 한 순수한 평화운동을 위해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진 khj@mokhoej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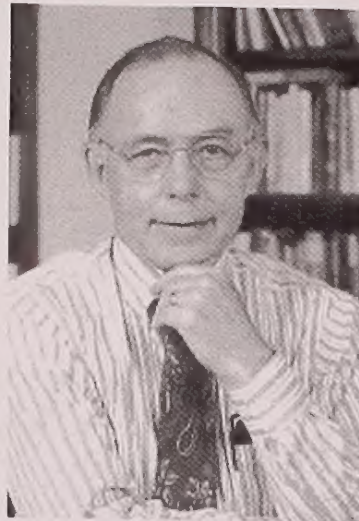


지난 9일 한국을 떠난지 70여년 만에 귀환하여 장신대 교정에 안치된 마포삼일 목사의 묘소앞에 유가족들이 방한하여 헌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특별기고

기독교 역시 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저명한 신학자인 맥스 스택하우스교수의 칼럼을 지난 달 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통해 정의하고 진단하는 주옥같은 글들이 실리게 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다립니다.



맥스 L. 스택하우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지난달의 첫 번째 칼럼에서 나는, 비록 그 속에는 언제나 개인적인 양상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종교들은 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의 공적 현존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에 의해서, 혹은 신앙을 대중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세운 예배의 센터들에 의해서, 그리고 생활의 주기를 정해 놓은 신성한 시간적 감각 등에 의해서 공적으로 되어간다. 또한 종교는 경제생활이나 교육제도, 의학요법, 결혼형태, 그리고 심지어 정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생활방식들을 야기함으로써 공적으로 되어간다. 이러한 방법들로 종교는 지속되는 전체 문화를 형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는 아시아적인 삶의 형태들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역사상 위대한 다른 종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기독교는, 비록 아시아에서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훨씬 더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역시 이러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공적으로 나아간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방법들로 기독교를 접하는 모든 영역에 그 흔적을 남긴다. 모든 종교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믿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연 관계적인 신앙을 형성한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지어진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개인의 존엄성을 인식한다. 태초부터 인간은

결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우리는 점차로 인권의 옹호자와 수호자들이 되어간다. 어떤 인종, 성별, 계층이든지 간에, 혹은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심지어 죄인이나 원수라 할지라도-사람들은 함부로 폭력, 박해, 착취를 당하거나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인식하는 일이 원근각처에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첫 걸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자각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준수해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대했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어떤 일들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되며, 또 어떤 일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져야만 한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사회가 그것이 진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상호 관계적이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수 그

“기독교는 정체성과
관계성 변화를 요구한다”“사랑은 인간에 대한
공적 선물이며, 선교의 중요한 일면”

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타고난(natural)'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점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그 시기에 따라 다소간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세례를 믿으며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확증할 시기가 될 때까지 힘써 양육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유아기가 아닌 성인이 되어서 체험하는 변화만을 믿는다. 어떤 길을 선택하던 기독교는 정체성과 관계성의 변화를 요구한다. 마음이 공허한 자들은 채움을 받고 죄인들은 죄 사함을 받으며 아무 것도 아니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로 되어가고 병든 자들은 영적으로 고침을 받는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들마다 사랑은 확대되고 새로운 헌신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개개인의 가족의 탄생은 물론 중요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들은 비록 생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를 존재하도록 이끌어 왔으며 또한 성장하도록 해주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그 나라의 역사나 정책들이 특별한 점에 있어서 결함을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하게 유지될 것이며 어느 정도 제한된 애국심은 정당화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문화는 언제나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의 한 부분

이 될 것이다. 그것은 맨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노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널리 인정된 방법으로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 변화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한 편으로 의미를 변형시키고 또 한 편으로 주변 세상의 신앙인들과 더불어 새로워진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이끌어 내는 또 다른 종류의 공동체가 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감각, 비전에 대한 새로운 한계, 그리고 의미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얻었다. 우리는 만약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와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형제자매들과도 신앙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으며 창조로부터 거룩한 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역사와도 연결되어져 있다. 심지어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조국, 문화조차도 좀 더 새롭고 큰 맥락에서 이해한다. 그러한 시각은 기존의 절대적인 개념들을 약화시킨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신앙인들이 더욱 사랑하고 더욱 정의로우며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신앙을 가진 인간에 대한 공적인 선물이며 또한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일면이다.

번역 정리/심미경

지구화·시민사회·기독교 윤리 번역자,
프린스턴 대학원 MA, 한양교회 전도사